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정원도시 이어 문화도시로 도약 문화산업 선도 35개 기업 이전도 "순천 전역에 문화 산업 입힐 것"

순천시가 추진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 18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를 통과해 본격에 오를 전망이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생태도시, 정원도시에 이어 문화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순천시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채울 전략사업이다.

시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기점으로,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애니메이션, 웹툰 등 대한민국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35개 기업의 이전에도 속도를 높인 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습지센터를 미국 픽사 스튜디오와 같은 창조적인 작업 환경을 갖춘 스튜디오로 리뉴얼해 관련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옥천, 남문터광장, 글로벌웹툰센터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겸비한 원도심 일원을 각종 전시체험 시설과 애니·웹툰 캠퍼스, 중소 제작사를 위한 입주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

화도시특구 지정으로 전국 유일 특구 3관왕을 달성한 순천시는 대규모 국비 지원을 통해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배움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민에게는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노관규 시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원도심까지 순

천 전역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입히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말했다.

또 "서울에는 동지가, 지방에는 먹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순천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노관규 시장 "통합의대 행정적 지원 최대한 할 것"

SNS에 의대공모 사실상 철회 통합의대 형식 정부 결단 남아

전남도가 사실상 통합의대로 가닥을 잡으면서 노관규 순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노 시장은 SNS를 통해 "순천시민들과 동부지역 도민들의 한목소리 응원 덕분에 전남도 의대공모는 사실상 철회됐다"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가 첨(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순대·목대 양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오게 하는 쪽으로 전남도 등이 방향을 잡은 거 같다"며 "공

동·통합·연합 등 복잡한 말을 쓰지만, 결국 양쪽 지역 두 군데 의대와 병원을 유치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노 시장은 "끝으로 가닥이 잡혔으니 순대(순천대)는 병원부지 확보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순천시는 행정적 지원은 지금처럼 최대한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노 시장은 대학통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가 나설 영역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공모선동으로 지역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던 분들,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들러 일침을 남겼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왕조1동은 지난 17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관내 경로당별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경로위안 잔치. 순천시 제공

전남뿌리기업협회·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MOU

울촌산단 조성 전 벤치마킹 등 강소기업 육성 방향 등 논의도

(사)전남뿌리기업협회와 광양익신산단협회가 영암 대불산단에 위치한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사)전남뿌리기업협회와 광양익신산단협회는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산업단지 활성화와 공공 연구 사업 발굴 및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교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험·분석 및 보유 제반 시설 인프라 활용 등 기업 지원 사업의 기획·추진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손을 잡았다.

이날 전남뿌리기업협회 회원사 60여개 대표들은 정부와 지자체 정책 사업을 수행중인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의 운영 방안 등을 벤치마킹한데 이어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와 세탁소, 물류장 등을 견학했다.

순천 울촌산단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커뮤니티센터, 편의시설 등 뿌리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남뿌리기업협회는 공동물류시설, 공동식당, 휴게시설 등 공동활용시설 등이 울촌산단에 들어 서기 전 현재 운영중인 대불산단 상황을 직접 견학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전남뿌리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목포드메로 호텔에서 신민호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부영 전남도청 기반산업과장, 송경환(농업경제학과 교수)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뿌리기업활성화와 국립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30에 지정된 강소지역기업 육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신 원내대표는 "뿌리기업은 모든 산업의 주요 핵심이자 근간이다"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연구와 기술 지원, 애로 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나가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호재 (사)전남뿌리기업협회장은 "선진 특화단지 벤치마킹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더 중추적 역할을 하는 협회가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종갑 광양익신산단협회장은 "전남뿌리기업협회의 많은 도움으로 광양익신 특화단지는 지난 6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는다"며 "전문가 기술 컨설팅, 특허출원 등을 통해 뿌리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인가비영리사단법인 전남뿌리기업협회는 136개 사가 속해있다. 62개 회원사는 지난해 9월 순천대의 글로벌대학 30 선정을 위해 강소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발전기금 42억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중 11개 회원사는 지난 8월 순천대에 발전기금 1억 1000만원을 기탁했다. 발전기금 4000만원을 약속한 이호재 회장은 현재 2000만원을 기탁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왕조1동, 노인의 날 기념 경로당별 위안잔치

순천시 왕조1동(동장 김미란)은 지난 17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관내 경로당별로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어르신 1000여 명에게 다과와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왕조1동 노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강순희) 소속 6개 직능단체 회원 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진행됐다. 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왕조1동 복지센터에서 축하행사 사전 교육을

받은 후, 경로당 등 40개소를 방문하여 직접 다과상을 차렸다.

각 경로당에서는 회장의 진행 하에 노인강령 낭독, 시장님의 축사 대독, 축하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은 음식을 나누며 노인강령을 통해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는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예산을 증

액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안내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순희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어르신들에게 드릴 꾸러미를 직접 만들어 찾아뵙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보람됐다"고 전했다.

김재남 왕조1동 노인회장은 "케이크와 촛불로 축하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매년 우리 어르신들을 잊지 않고 챙겨 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전국체육대회 메달 잔치

양궁 남수현 등... 금 3 은 1 동 1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양궁, 유도, 소프트테니스팀 선수들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 일원에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여 선수단 및 관계자 포함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 14일 유도팀은 개인전에서 70kg 이하급 김지정 선수와 57kg이하급 박다솔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52kg이하급에서는 양서우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소프트테니스팀은 전남 대표로 출전, 16일 단체전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파리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한 남수현 선수가 참여

한 양궁팀은 이은경, 유시현 선수와 함께 전남 대표로 출전, 단체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 전국체전 3연패 달성으로 순천시 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노관규 시장은 "매일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성실함이 더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올해 남은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매주 수요일 영농 현장 방문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증가 등 농업 현안 신속 해결은 물론 적기에 영농지도와 사업발굴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농업 현장 방문의 날로 정하고 전 직원이 영농현장을 찾고 있다.

농업 현장 방문은 현장지원단 23명으로 구성해 11개 읍면과 도사동 영농현장

을 찾아 영농자료, 농사정보 및 농업정책 등을 현장순회 지도와 함께 품목별로 농가에 맞춤형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영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기별 영농정보와 신기술 보급에 집중,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현장순회 중에 농업인의 불편 사항과 정책에 반영할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SNS를 통해 사진과 함께 보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농민들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농업 현장 방문으로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농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